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10. 16.(금) 07:00 ~ 2026. 10. 18.(일) 22:00
- 상담건수: 874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방송일시 : 2026. 10. 16.(금) 2TV (22:10-23:50)

먹는 방송이나 개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 식상하던 차에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고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계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은은하게 감성을 자극했고, 마음속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다. 처음 알게 된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려 한다.

○ 보도 제언(2명)

-프로그램명 : 「KBS 뉴스」

-방송일시 : 1TV

김건희 씨를 여전히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한다. 대통령의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공영방송에서 아직도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3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74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481	79	-	-	314	874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00	303	21	-	2	148	874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58	716	-	874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89	1	57	127	874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바다 건너 사랑 6」 - 후속 방송 요청 【보 도】 ○ 「KBS 뉴스」 - 보도 제언 ○ 「KBS 아침 뉴스타임」 - 진행자 제언 【스포츠】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 방송 호평 【시사·교양】 ○ 「다큐멘터리 3일」 - 방송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 출연자 제언 【연예·오락】 ○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 방송 호평 ○ 「불후의 명곡」 - 방송(세트) 제언 【드라마】 ○ 일일드라마 「욕망의 텃」 - 극본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토굴 새우젓」 연락처 문의 35건 ○ 「동네 한 바퀴」 - 「야생화 정원」 연락처 문의 34건 ○ 「불후의 명곡」 - 「방청」 문의 30건 ○ 「2TV 생생정보」 - 「만두전골」 문의 22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4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5건 ○ 「주차」 문의 3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2건 ○ 「견학」 문의 2건 ○ 「인터넷 방송」 문의 2건 ○ 「수신료」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27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 「바다 건너 사랑 6」 (1명) - 2026. 6. 28.~2026. 9. 13.(일) 1TV 방송. (총 12부작) - 먼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 매달 후원에 참여해 왔다. 평소 자녀들에게도 남을 도우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러한 나눔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후속 방송을 제작해 방송을 이어갔으면 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보 도]	
보도 제언	○ 「KBS 뉴스」 (2명) - 1TV - 김건희 씨를 여전히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한다. 대통령의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공영방송에서 아직도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진행자 제언	○ 「KBS 아침 뉴스타임」 (2명) - 2026. 10. 15.(목) 2TV (10:40-11:10) - 진행자의 발음이 부정확하다. 마치 입안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들려 듣기에 불편하다. 아나운서라면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발음에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스포츠]	
방송 호평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제주월드컵경기장-’(1명) - 2026. 10. 16.(금) 1TV (17:50-19:40) - 작년 부산에 이어 올해는 제주도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한층 더 뜻깊게 시청했다. 앞으로 여러 종목의 중계를 통해 스포츠 축제의 현장을 KBS에서 생생하게 전해주기를 기대하며, 선수들을 힘껏 응원하겠다. ※의견제시자 : 곽**
[시사·교양]	
방송 호평	○ 「다큐멘터리 3일」 ‘삶을 잇다-서울역 72시간’(1명) - 2026. 10. 16.(금) 1TV (19:40-20:30) (재) - 이날 방송을 보며 1970년대 고향인 목포와 서울을 기차로 오가던 학창 시절이 떠올라 추억에 젖었다. 기술과 문화가 고도로 발전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했었다. 소중한 옛 추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고맙다. ※의견제시자 : 익명
출연자 제언	○ 「일요진단 라이브」 (1명) - 2026. 10. 18.(일) 1TV (08:00-09:00) - 연령대가 높은 패널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형화된 의견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는 어떤 시각과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패널을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구성했으면 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연예 · 오락]	
방송 호평	○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1명) - 2026. 10. 16.(금) 2TV (22:10-23:50) - 먹는 방송이나 개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 식상하던 차에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고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계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은은하게 감성을 자극했고, 마음속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겼다. 처음 알게 된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려 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세트) 제언	○ 「불후의 명곡」 (1명) - 2026. 10. 17.(토) 2TV (18:05-20:00) - 출연자 뒤쪽 배경에 영어 문구가 지나치게 많다.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방송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글날이 있는 10월인 만큼,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무분별한 영어 사용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의견제시자 : 오**
[드라마]	
극본 제언	○ 일일드라마 「육망의 뗏」 (1명) - 2026. 10. 16.(금) 2TV (19:50-20:30) - 드라마에서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된다. 이날 방송에서도 사람을 감금하고 피가 날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연출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